

대불련회장 선출못해 40년만에 입후보 없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창립 40년 만에 입후보자가 없어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4~15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대불련은 “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2003년 1차지부장단회의에서 재선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비상집행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선출과 대불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박문수 회장과 각 지역대표는 비상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서 내년 초까지 대불련을 운영한다.

회장 선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 박문수 회장은 “현재 각 지회도 회원 감소와 활동력 둔화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부장단회의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대불련 회원들의 의견을 꾸준히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대불련 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지만 종단에서는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대불련 스스로가 느슨해진 조직을 추스려 대학 불자들의 고민을 껴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년 임기의 대불련 지도위원장에는 고영삼 지도위원장이 재추대됐다.

강유신 기자

작은정성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은 결코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의 일은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만 정성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기쁨이다. 현대불교신문이 2002년 연중기획으로 마련한 ‘후원합시다’를 통해 알려진 사연들은 불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불자들의 정성들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인연을 낳았다.

396호를 통해 신장병을 앓는 사연이 알려진 도천스님에게 11월 초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백 화백이라고만 밝힌 독지가가 돕겠다는 뜻을 밝혀 온 것. 국선에 출품했던 자신의 작품을 기증, 신장병 치료비 마련에 보태 달라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스님의 도반들도 사연을 알고

은주 양은 KBS ‘사랑의 리퀘스트’의 출연 요청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로 부터 후원을 받을 길이 열린 상태. 혼합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는 17일 조혈모 이식 수술을 받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스님이 스님을 돕겠다고 나선 경우도 있었다. 358호에 보도된 곽안사 어린이집 보덕스님은 성남 청룡

‘후원합시다’ 캠페인 결산



분 더 생겨 좋아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398호에 관절 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소개된 이상순 할머니는 10일 일본에 산다는 교포가 돕고 싶다는 전화를 해 왔다. “타국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

도천스님 신장병 치료비로 미술품 기증 백혈병 등 절절한 사연마다 도움 쏟아져

도천 스님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무녀야로 태어난 선유이(397호), 백혈병을 앓고 있는 상철이(399호)나 류은주(395호) 양에게도 불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선유이 할머니 정금자 씨는 “불자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선유이의 수술 결과가 희망적이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소설 읽기를 좋아하는 류

사 인쇄스님으로부터 정기적 후원금은 물론 확용품과 감사, 한약 등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스님은 “인쇄스님도 고아로 태어나 절집에서 컸다”며 “여생을 ‘형제’ 처럼 함께 지내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을 희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40년 넘게 보살펴 온 보덕스님은 “아이들이 ‘할머니’ 한

유물을 전시하는 기념관이 들어서 이날 설 거사 추모비 제막식도 열렸다. 제막식에는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이 촛불을 이용한 추모 현무를 공연할 예정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호를 위해 파견된 JTS가 카불 근교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3일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국제협력단 김대식 이사, 김진오 팀장 등 실무자와 아프간 주재 한국의 타 NGO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사무실 개소에 따라 JTS는 카불근교 식수 공급을 위한 소형 댐건설 공사와 학교 건축을 진행한다.

인도=김동훈 통신원, 남동우 기자

인도 수자타 기술학교 개교

JTS, 의료·기계등 5개부문 전문교육

인도 JTS(이사장 법륜)가 불가족 천민들을 위한 학교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 9돌을 맞아 1월 12일 ‘수자타 기술학교’ 개원식을 연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은 기술학교는 수자타 아카데미를 졸업하고도 취직이 힘든 사회적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득증대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의 역할을 예정이다.

학생들은 의료, 기계, 건축, 농업, 가정 5개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공통과목으로 영어, 한국어, 컴퓨터 수업을 수강한다. 특히 도서관 한편에는 지난해 1월 10일 기술학교 공사를 진행하다 무장강도의 흉탄에 유명을 달리한 故 설성봉 거사 행적과

이사장 도후스님 연임 불교방송 이사회 열어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17일 46차 이사회를 열고 도후스님의 연임을 의결했다. 또 총지종 법공정사를 이사로 새로 선임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진각종 회장정사, 대한불교진

흥원 김표진 이사, 감사 종훈스님(조계종 전 기획실장)을 유임했다.

19명의 이사 가운데 11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춘천불교방송 개국에 따른 정관 개정과 164억원 규모의 2003년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상암동 사옥 이전사업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두식 기자

한-미안마불자 한자리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우영)는 29일 서울 암사동 미안마선원에서 한-미안마불자 친선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미안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양국 간의 불교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마련된다. 박봉영 기자

1544-0108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운불련, 콜서비스

서울 운전자불자회 법률위원회(장 윤승봉)는 20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204-1번지 콜센터를 마련하

고, 서울, 인천과 성남, 일산, 과천, 군포, 용인, 의왕 등 위성도시에서 ‘1544-0108’ 콜서비스를 개시했다. 서울 운불련은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 실행활동은 물론 콜서비스에서 얻은 수익금의 50%를 적립, 지체·정각 장애인시설 봉사, 세상나들이, 무의탁 독거노인 위문 등의 활동자금으로 활용한다.

범어사사태 진정국면으로

민·형사 재판 일단락, 성오스님 체제유지

범어사를 둘러싼 민·형사 재판이 일단락돼 범어사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5일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청년승가회 소속 스님들이 낸 현 주지 성오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행정처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1, 22대 주지직을 수행하면서 재무국장 국고보조급 편취 등으

로 재산일실 및 명예실추에 대한 직무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주지 스스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중벌을 위반한 자료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과 중무렵의회 의장 흥교스님, 전 재무국장 석호스님 등을 상대로 낸 형사재판도 10월 25일 무혐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일단락 됐다. 천미희 기자

“오갈데없는 병든 노스님 안타까워”

‘기로의집’ 개원 한돌 환안스님



“노스님들이 병이 들어도 오갈 데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5일로 개원 1주년을 맞은

요양을 하며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 해 12월 15일 청량리에 설립됐다. 또 간병을 받는 노스님들이 시봉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에게 1대1 강원식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란다삼장불학원도 열어, 노스님의 수행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나란다삼장불학원 열어 수행 배우게

한국불교 금강선원 산하 복지단체 ‘기로의 집’ 환안 스님(금강선원 이사장·사진)은 “많은 불자들이 ‘기로의 집’을 원만히 운영되도록 도와주었다”고 밝혔다.

현재 13명의 노스님을 수용하고 있는 ‘기로의 집’은 병든 스님들이

종합불교예술대학을 운영하며 한·몽 불교 교류에도 힘쓰는 환안 스님은 “내년에는 스님 요양시설 ‘기로의 집’을 1층 증축하고 비구니 스님을 모시는 시설을 만드는 등, 30명 정도의 스님을 모시는 것을 목표로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미 퀘도차희생 여중생 부시대통령 직접사과를”

종교신문언론인협 성명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회(대표 의장 홍시환)는 14일 강화도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등 5대 종교신문 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갖고, “미 부시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종교신문 언론인들은 성명서에서 “세계 곳곳의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제국주의적 정치만행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한국정부도 자국민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SOFA협정의 조속

한 개정을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장갑차로 무참히 여중생을 살해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만행을 저지른 미국은 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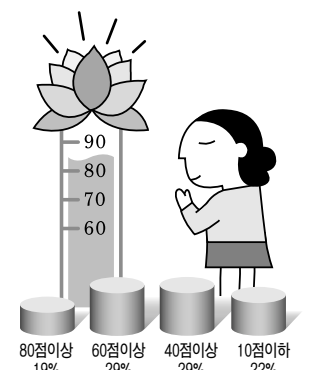
이에 앞서 종교신문언론인협은 윤청하 문화부 종무실장 등과 종교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를 주제로 제 6회 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차차석 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이 기초발제, 최규창(기독교신문 편집국장), 정유제(밀교신문 편집국장), 우세관(원불교신문 기자), 서경희(신간 기자) 서상덕(카톨릭신문 기자)씨가 주제 발표 했다.

김원우 기자

불자의 생각 <골>

신행점수

불자님은 스스로 올 한해 신행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질문을 한 결과 총 응답자 63명 가운데 18명(29%)이 각각 40점 이상, 60점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14명(22%)이 40점 이하, 12명(19%)



“내 신행 60점 이상” 49%

이 80점 이상, 1명(1%)이 100점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23명(36%)이 법회 참석, 10명(16%)이 각각 보시행과 기타, 9명(14%)이 포교, 6명(10%)이 성지순례, 5명(8%)이 불사동참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